

“당신이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진리” (롬 5:8)

설교 조상용 담임목사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끄셔서, <로마서 5:8>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에는 세 등장인물이 나온다. 우리(모든 인간을 의미함), 그리스도(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 진리를 함께 살펴보자.

1.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이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 깨끗한 옷을 입고 진흙탕 옆을 지나가다가 실수로 흙탕물이 튀었다면, ‘조금밖에 안 튀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흰옷에 난 얼룩은 크나 작으나 분명한 얼룩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은 가장 큰 죄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죄이다. 죄는 심판을 받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를 원하신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다.

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죄인이 심판을 받고, 멸망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셨지만,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성경은 말씀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주’, ‘생명의 주’라고 부른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제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3.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다. 여기서 ‘확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말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사랑의 손길을 붙잡아야 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 불행한 삶이 행복한 삶으로 변하고,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이 되고, 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자.

“당신이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진리” (롬 5:8)

1. 마음 열기 - 어린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놀이가 무엇이었나요?

2. 경배와 찬양 - 찬 299장 (하나님 사랑은), 아바 아버지

C Am7 F C/E Dm7 G7
아바아버 지 아바아버 지 나를 안으시 고바라보 시는 아바아버 지

C Am7 F Dm7 Gsus4G C G7
아바아버 지 아바아버 지 나를도우시 고힘주시 는 아 버 지 주는

C C/E F C/E Dm7 G7 C C/E
내맘 을고치 시 고 볼 수 없는상 처만지 시 네

F G/F Em7 Asus4A7 Dm7 G7 C
나를아 시고 나를이해하시네 내영혼 새롭게세우 시 네

3. 말씀 나누기 - 먼저 성경 본문과 말씀 요약을 읽으세요.

- (1) 성경 본문과 설교를 통해, 특별하게 다가온 말씀이나 은혜받은 교훈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 (2) 성경은 우리 모두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언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실감하시나요? 함께 나눠보세요.
- (3) 우리는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할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변에 의지적 결단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을지 이야기 해보세요.

4. 사역 나누기

- (1) 하나님께 받은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 (2) 우리 목장이 품은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 (3) 6/3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